



제일코퍼레이션은 항상 미소를 잃지않는 고품격 경영을 펼치고 있다. 맨 우측이 유교준 대표

## “고품질 · 적기납품으로 고객 만족 실현” 재료공급 외길 제일코퍼레이션(주)

제일코퍼레이션(주)대표이사 유교준은 지난 1970년에 창업하여 올해로 38년째를 맞이하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인쇄재료 전문유통회사이다. 창업할 당시에는 제일인쇄재료상사로 설립하였으며 그동안 제일교역, 제일산업 등의 사명 변경을 거쳐 지난 2001년 현재의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회사명을 바꾸었다.

20여년 간 사업을 꾸려왔던 중부경찰서 앞에 있던 사옥에서 신사옥을 마련하면서 외적인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이름을 결정했다. 현재 사명인 제일코퍼레이션(주)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다.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이래 제일코퍼레이션은 다른 영역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사실 다른 분야로의 새로운 진입을 시도해 볼 만한 여력은 있었다. 그러나 끝내 인쇄재료라는 한길만을 걸어가기로 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한 것은 선친의 창업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한가지 길-인쇄와 관련된 재료 취급-을 가기를 간절히 부탁했고 유 대표는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자제하는 아쉬움을 회사의 외형은 작을지 몰라도 경영철학과 비전은 큰 기업을 지향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대신해 왔다.

### 웃는 자가 승리, 긍정의 경영 펼쳐

제일코퍼레이션을 방문하게 되면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 조금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밝은 직원들의 분위기 때문인데 이는 항상 미소와 긍정을 강조하는 유 대표의 경영철학이 회사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실천된데 힘입은 바 크다.

이와 관련해 유 대표는 “저는 긍정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자기관리에서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나 사업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잘되고 있다,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항상 밝은 얼굴로 고객들을 대하고 직원들을 격려 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결국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일코퍼레이션의 직원들은 표정이 밝으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오래되어 뛰어난 팀웍으로 효율성 높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도 거래처와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고품격 경영으로 호평 받아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을 악착같이 일찍 받아라” 옹고 그림의 여부를 떠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거래 관습의 하나다. 그러나 최소한 제일코퍼레이션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줄 것은 정확하게 늦지 않게 주고 대신 받을 수 혜택은 확실히 받자는 실속 있는 상생과 고품격 경영을 지향하는 유 대표의 경영철학이 깊숙이 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거래처에서는 대금을 찾아가서 결제 해주기 위해 자주 자기 회사를 찾아 가는 제일코퍼레이션의 직원이 자사의 직원인 것으로 착각했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렇게 결제하는 관행이 벌써 수십년째 이어지다 보니 거래처에서도 제일코퍼레이션에 대한 공고한 믿음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 거래처 직원은 “깔끔하게 결제를 해주고 매출도 우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거래처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위해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한다. 줄 것은 잘 챙겨주고 받을 것은 최대한 받자는 이른바 윈-윈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정예인원과 자신감으로 10년 연속 매출 증가

제일 코퍼레이션은 현재 1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남과 다른 자신만의 역량을 확보하고 중간관리자, 기업의 경영자 지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 활동하는 활기 넘치는 직원들이다.

모두의 책임과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공석이 생기면 특별한 애기가 없어도 모두가



## 색이 생생 살아있네!

하나의 인쇄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서 부터 입-출력, 교정, 인쇄까지 여러 공정을 거치며, 공정마다 선택되어지는 재료의 품질이 곧 인쇄물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인쇄재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30여년을 노력해 온 '제일코퍼레이션'은 첨단 디지털 인쇄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인쇄물을 위해 출력용 필름에서 부터 PS판, CTP판 등 모든 인쇄재료에서 업계 '제일'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일코퍼레이션'은 고객의 곁에서 고객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제일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협심 단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동시에 공식의 일을 무리없이 처리하고 있다. 이른바 21세기에 필요하다는 멀티플레이어형 직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물로 제일코퍼레이션은 10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해 왔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경기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음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필름의 단일 제품공급자로서 50만 sqm 이상을 판매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고객 관리 수준을 뛰어넘어 고객의 신뢰를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회사의 구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사가까지 만들어 직원들의 단합과 애사심 고취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을 부여하고, 정신적인 자산을 풍성하게 만들면서 단합된 회사 분위기를 만드는 제일코퍼레이션은 계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